

체전·축제 풍성한 장성으로 오세요

4~5월 장성 방문의 해 프로젝트

전남체전·락페스티벌·이벤트

상품권 경품·반값 관광택시 혜택

장성군이 '1000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알차게 준비한 '2025 장성 방문의 해' 관광프로젝트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장성군은 4~5월 두 달간 장성 전역에서 전남체전, 락페스티벌, 축제, 각종 이벤트가 풍성하게 펼쳐진다고 밝혔다.

전남체전(18~21일)을 시작으로 성장장성 락페스티벌(19일), 전남장애인체전(4월30일~5월2일), 길동무 꽃길축제(5월10~11일)가 이어진다.

가장 많은 참여가 예상되는 콘텐츠는 '영수증 리뷰 이벤트'다.

'4~5월 장성 방문의 달' 기간에 장성 지역 음식점, 커피숍, 숙박업소를 이용한 후 인증사진을 남겨야 한다.

이어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 후 장성역 '여행자 플랫폼'을 방문해 리뷰 화면을 보여주면 2만~7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자기용 없이 장성 여행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장성 방문의 해 홍보 포스터.

록 '반값 관광택시'도 운영한다. 3시간, 5시간, 8시간 코스로 구성된 택시는 이용 요금의 50%를 장성군이 부담한다.

축령산 편백숲 등산객들이 코스를 완주한 후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무료 이동 수단 '명품숲 투어 어케인' 프로그램도 관광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모든 콘텐츠는 장성을 찾은 방문객만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예약 진행은 '장성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4~5월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을 비롯해 축제와 락페스티벌 등을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쏠쏠한 재미와 혜택이 가득한 장성군으로 자신 있게 초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남도관광 1번지 담양서

5~6일 추월산 벚꽃축제

담양 용면 추월산 벚꽃축제가 오는 5일부터 이틀간 담양군 용면 추월산 벚꽃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열번째인 이번 축제는 용면 청년회가 주최·주관해 추월산의 아름다운 벚꽃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난타 공연과 버블쇼, 부채 만들기 체험·판매, 용마루길 보물 찾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 지역 특산물인 용면 팔기와 챠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5일 오후 2시 개막식에서는 봉산과 우농 악보준회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트로트 가수 미스김과 송유나의 초청공연, 주민 노래자랑, 담양연예인협회의 특별 공연 등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최고령 장수상, 장수 부부상, 4대 거주 화목상, 다문화 모범상 등의 시상식도 진행된다.

심갑철 용면청년회장은 "담양호를 품은 추월산 벚꽃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올해 농촌 적정 인건비 11만원 제시

심의위 열어 지난해 동일 금액 결정

나주시가 올해도 농가와 근로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의 협력 관계 정착을 위해 적정 인건비 기준액을 정했다.

나주시는 지난 2일 '2025년 농촌 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사진>)을 열어 농촌지역 단순 노무 근로자의 하루 인건비 기준 금액을 8시간 기준 11만 원을 제시했다. 이번 기준 금액 결정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졌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제정된 나주시 농촌 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매년 농촌 노동력 정책과 인건비 조정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선 농촌 인력 임금 동향과 물가 상승률, 근로 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정 인건비 기준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근로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농촌 농작업 적정 인건비' 제시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 농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농가와 작업자 간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가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상호 협력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나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표는 800명으로 이 중 660명을 농작업이 집중되는 상반기에 배치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은 "제시된 적정 인건비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농가와 근로자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근로자 간 상생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꽃강길·남산공원 등 버스킹 공연

10월까지 매주 주말·공휴일

화순군은 4일부터 매주 주말(금~일)과 공휴일에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 앞, 남산공원 등 화순 명소에서 버스킹 공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은 남산공원 무대에서 오후 7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꽃강길 음악분수대 앞에서 오후 7시 20분부터 약 40분간 공연할 예정이다. 우천과 폭염 등 기상 상황 악화 시에는 공연이 자동 취소된다.

버스킹 공연 장소인 화순 남산공원에서는 어둠

이 깊어질수록 화려한 야간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꽃강길 음악분수대는 다양한 멜로디와 함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분수 쇼로 감동을 선사한다.

'2025년 화순 명소 버스킹'에 선정된 공연팀들은 2곳의 버스킹 장소에서 대중가요·밴드·클래식·색소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나들이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강삼영 화순군 문화예술과장은 "화순 명소에서 진행될 버스킹 공연에 많은 분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30년 만에 다시 문을 여는 강진영화관.

강진영화관 30년만에 다시 문 연다

17~18일 무료 시사회

가유공자, 장애인, 청소년(18세 이하), 군인, 경로(65세 이상), 단체(10인 이상),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은 할인된 6000원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개관 당일 17일부터 18일까지 군민 대상 무료 시사회를 개최한다. 개관일 상영작은 강진 출신 김의성, 하정우 주연의 '로비', 조헌현-이장호의 바둑 이야기를 담은 이병현 주연의 '승부', 강하늘 주연의 '야당'과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출동! 왕영동이 하이로' 등 최신 영화다.

영화관 운영은 연중무휴로 일일 4회 상영하며, 요금은 일반 7000원, 입체(3D) 9000원으로, 국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4월 장흥서 전국규모 스포츠행사 줄줄이

브랜드 상승·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활체육대축전'의 일환으로 태권도 경기가 25일부터 27일까지 장흥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흥군은 다양한 스포츠 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스포츠 도시, 동시에 전지훈련의 메카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체육 인프라 확보와 스포츠 관계자들이 체류하는 동안 불편이 없도록 친절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체육 인프라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에 힘쓰겠다"며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끊아먹는
기상 중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